



(주)진로발효

리 김지현 주정팀

소주시장의 든든한 지원자

소주는 우리나라의 국민주로 대표되는 주류로 해방이후 꾸준하게 시장이 커져 왔으며 최근 몇 년동안은 눈에 띄게 성장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마시는 주류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주시장의 급성장 이면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는 우리 주정업체의 노력이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소주시장을 뒷받침하는 주정산업의 선두에는 진로발효가 있다. 진로발효는 1966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중앙발효(1937년 설립)를 인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대한발효공업(주) 인수 합병과 수차례에 걸친 시설증설로 국내 최대 발효주정 생산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고 1986년 상호를 진로발효(주)로 변경하면서 현재 반월공단으로 이전하였다.



대표이사 김종식

1992년에는 생산기술직부터 업무 경험이 있는 김종식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생산 현장부터 최고 경영층까지 조화를 이루어 더욱 내실있는 회사 운영을 이루게 되었다.

1993년 들어 진로발효는 모기업이었던 진로그룹과의 계열분리와 주정업체 최초로 장외 주식시장 등록을 통하여 한 단계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정산업의 미래 크린콜

현재 주정산업은 안정적인 산업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발전성도 그다지 크지 못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주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고 소주시장 이외의 별다른 대형 수요처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WTO, FTA 등 외부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주정산업도 더 이상 안정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정업체들은 사업다각화와 주정 신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진로발효에서 개발된 천연 식품 첨가물과 살균 소독제인 “크린콜”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크린콜”은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에탄올 살균소독제 시장이 국내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서 1996년 살균소독제로 처음 출시되었다. 그러나, 사업 출범과 동시에 IMF라는 큰 암초를 만나게 되면서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소독제 시장에서 IMF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제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은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제품개발과 시장개발에 더욱 노력하였다.

IMF를 무사히 넘긴 후 2000년 들어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시장

규모가 매년 30~40%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첨가물로서도 인정을 받아 제품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현재 약 3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알코올 소독제 시장에서 진로발효의 시장점유율은 70% 정도이며 약 3천여개소의 거래처와 20개의 전국 대리점망을 구축하고 있는 알코올 소독제 시장의 선두업체로 우뚝 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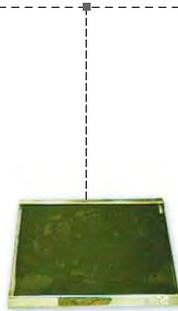
최근에는 시장규모가 커지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일부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 선두업체로서의 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신제품과 자동 소독기구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 최신형 자동 스프레이어



●● 손소독기



●●● 발판 소독기



●●●● 칼 소독조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기업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진로발효의 노력은 수상내역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환경관리와 관련된 수상이 10여회로 8년 연속 환경청 지정 모범업체로 선정될 정도로 반월공단내에서는 유일한 모범업체이며,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표창도 3회 이상 수상하였다.

주정의 제조공정상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폐수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로발효의 이러한 노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1992년에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 지정 연구사업으로 자동차 연료용 알코올 제조를 위한 시험공장이 진로발효내에 설치되었지만 실용화되지는 못하였다.

최근 자동차용 대체연료로서 알코올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앞을 내다본 사업이었지만 실용화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금년들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증류탑을 교체하였다. 에너지가 많이



● 감압증류탑

소비되는 기존의 상압식 증류탑을 상대적으로 40%정도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감압식 증류탑으로 교체한 것이다.

주정업계 발전을 위한 선도자 역할 수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WTO와 FTA 등 세계적 개방화 추세로 인하여 주정업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시점인 것이다.

진로발효는 업계 선두주자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원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같은 노력이 주정업계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